



# MONTHLY

## The Last Report



Chamara



Dedunu



Aruna



Rashmi



Sayuri

↙ 앤 찌리짱!

# Last Supper와 걸절이들

(짱난임! 귀엽게 봐주삼!)

01. INTRODUCTION OF REGULAR PROGRAMS
02. DIGOROLLA GARDEN
03. COMPOST BIN
04. WALL PAINTING
05. 350PPM CAMPAIGN
06. MARC SRI
07. DANSAL WITH YOUTH CLUB
08. FLAG DAY
09. OUR VISIT TO THE MUSEUM
10. FUNERAL
11. SRI LANKAN FOOD PARTY

# 랑카팀의 정규 프로그램 대.공.개!

## 1. Children Club

Children Club은 MORATUWA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같은 활동이며, 이름 그대로 8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35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정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드라마, 장기자랑, 실내게임, 그룹토론, 캠페인 등이 있으며, 대부분 개인 활동이 아닌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주축이 되어 행사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 2. Taekwondo Class

저희 스리랑카 팀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children club 학생들 중 희망자 한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13명 입니다. 수업진행 방식은 우선 아이들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처음에는 태권도의 기초동작을 진행한 후, 각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품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에는 태권도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태권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과 각 과정을 통과하여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새로운 품새와 각자의 품새에 맞는 띠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품새에 따라 4가지 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새 1,2 장은 흰색, 품새 3,4장은 노란색, 품새 5,6은 초록색, 품새 7,8 장은 빨간색)

현재 아이들은 품새 3장에서 7장까지 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 3. Digorolla Garden

디골롤라 가든은 디고롤라 지역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몇 달간은 아이들이 있는 마을로 우리가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좋지 않았고, 수업을 할 변변한 장소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은 강가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도 없으며 책상도 의자도 없습니다. 주민의 도움을 받아 공부할 집을 구했다 해도 대부분의 집이 형광등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업은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의 대상으로 하는 랏슈미와 다루시 반, 남자 아이들이 있는 차마라, 아쇼카 반, 중간 클래스 데두누, 와루니, 아루나 반 마지막으로 중급 영어회화를 맡고 있는 사유리 반이 있습니다. 각 반의 인원은 조금씩 다르며 수업은 주로 싱할라,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적인 이유로 지난 3달간은 마을에 방문하여 수업을 하였지만, 이제는 봉고차를 빌려 아이들을 YMCA로 데려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한번(월요일) 있는 수업을 2번으로 (월, 목) 늘려 월요일에는 정규수업, 목요일에는 Open class를 통해 Green Proje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3. Watering the trees

저희는 아침마다 YMCA 앞 도로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줍니다. 처음에 모라투와에 왔을 때에는 나무 틀이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물을 전 기수들 때 보다 많이 주었는데요, 저희 Concrete Ring 프로젝트 이후로는 물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콘크리트 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무의 뿌리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물을 많이 주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oncrete Ring이 보기에 좋고 영구적이지만 나무들에게 사실상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고민입니다.

### 4. Herbal Drink

랑카팀은 수요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YMCA로 향합니다. Lunawa 병원에 가서 Herbal Drink를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뇨병 환자 분들을 위해 허벌 드링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드리고 있는데요, Herbal Drink는 저희가 이 지역 주민 분들을 꾸밈 없는 모습으로 만나고, 그들과 친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5. Youth Club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 팀은 모라투와 YMCA에서 진행하는 Youth Club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만 19세부터 Youth Club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대학생인 경우는 거의 없고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거나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하며 지역청년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 6. Korean Class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우리 팀은 현지 청년들 및 아이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고 있고, 초급반은 한국어의 기초 및 글자를 학습하고, 중급반은 한국어를 매개로 하여 문화학습 및 드라마 등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급반은 한국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시험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급반은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이용하여 한국 드라마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mmittee Meeting은 긴 관계로 다음 장에 !)

# COMMITTEE MEETING

Committee meeting이란 매주 월요일 저녁, 라온아띠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관해 현지Y와 라온아띠 단원들이 회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모라투와 Y 보드멤버 및 현지 코디네이터 Ashoka, 그리고 라온아띠 단원들만 참석합니다. 현재 Mr.Godfrey가 라온아띠 총괄책임자이며 그 외 Mr.Nimal(前모라투와Y회장), Mr.Nihal, Mr.Lasla(前모라투와Y 회장), Mr.Vernard(現모라투와Y 회장)등 라온아띠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보드멤버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라투와 Y 보드멤버들에 의해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운용에서부터 최종승인까지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활동 초기에는 스리랑카의 메인 프로젝트인 Digrolla 환경개선, compost bin 현황조사 등이 몇몇 사항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지만 보드멤버들의 허락이 떨어진 직후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일이 빠르게 추진되어왔습니다. 5월달의 화두였던 최후의 만찬 그리기 프로젝트도 보드멤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일일이 찾아 다니며 설득시켰기 때문에 라온아띠 committee meeting뿐 아니라 모라투와Y의 연간회의에까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결국 보드멤버들의 만장일치로 프로젝트 시행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서 라온아띠 프로젝트에 관한 보드멤버들간의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어, 보드멤버 설득작전 이후 보다 수월하게 이곳에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시간에는 매주 사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주에 있었던 활동 보고 및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라온아띠 5명이 모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도 회의에서 한가지 의견으로 통일하여 말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각각의 의견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활동 초반, 처음 committee meeting을 접했을 때는 모두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은 팀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보드멤버들이 저희 의견을 듣고 나서 조언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회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에 가끔은 프로젝트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생활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그로 인해 보드멤버들과 더욱 친해졌다고 생각됩니다.

프로젝트와 보드멤버들과의 친목 도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committee meeting,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인만큼 이 곳에서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이팅!

## 강가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마을 이야기

우리 강가의 아이들(이하 Digorolla Garden)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온 라온아띠 5기 스리랑 카팀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 저희 팀은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ㅋㅋ 한국 갔을 때 살이 포동 포동 오른 저희를 사람들이 못 알아 볼까봐 걱정입니다...ㅠ

자, 지난 보고서에서 Digorolla Garden에 대해 말씀 드렸던 새롭고 즐거운 소식들 기억하시나요? ㅋㅋ

우선 우리 Digorolla Garden 아이들을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엔 큰 봉고차를 빌려 아이들을 YMCA로 데려와 정규 수업(영어, 수학, 싱할라)을, 그리고 목요일엔 반을 나누지 않는 Open class 형식의 다른 교육(환경교육, 지구 시민교육 등)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월요일엔 아쇼카와 저희 중 한 두 명이 같이 YMCA로 오는 봉고차를 타고 Digorolla Garden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 옵니다. 옛날엔 저희가 일일이 강가 근처로 모아야했던 아이들이 이젠 소풍이라도 가는 마냥 예쁜 옷들을 입고 마을 앞에서 저희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이들을 YMCA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수업의 질도 기존 보다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수업 교재와 같은 형식의 유인물도 많이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Digorolla 마을로 가서 수업을 했을 때는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서 수업에 제한이 많았는데,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질적으로 정말 많은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YMCA 마당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논다든지 크리켓을 합니다. Digorolla 마을에 있으면서 마땅히 놀 땅 조차 찾기 힘든 아이들에게, YMCA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랄까요...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난 보고서에서 말씀 드린 것이 바로 Digorolla Green Project입니다. 디고롤라 가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5월 보고서에서 Green Project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후 많은 회의와 노력을 거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목요일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첫째로 저희가 시작한 것은, 마을 주민 분들과의 대화입니다. 목요일에 가서,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무엇이 정말이 마을에 필요한지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알게 된 몇 가지는, 첫째로 화장실 보수공사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40-50가구,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마을에 화장실은 단 4개뿐입니다.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미 2개는 망가져 쓰레기가 뒤덮고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개들의 쉼터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의 사람에게 화장실은 단 2개. 아침마다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라 다들 손에 물 통을 하나씩 들고 아침에 화장실 전쟁을 치룹니다. 게다가 배설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화장실 옆 큰 돌 아래 그대로 쌓여있어 모든 악취와 벌레, 곤충, 세균들이 만연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배수로 공사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물이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는데, 그 길 주변으로 쓰레기는 물론 표족한 돌들이 즐비하며 이 마을에서 나오는 화장실 물, 샤워하는 물 등은 모두 이 물길로 가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끔씩은 배설물이나 음식물쓰레기까지 섞인다고 하니 위생 상태는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가느다란 파이프라인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배수로 파이프 공사를 화장실 보수 다음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대략 15,000루피(약 15만원)가 든다고 합니다. 현지 물가와 Digorolla Garden 주민 분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을 만한 액수라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도 모금을 위한 계획을 생각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하고 싶지만, 더 급한 것들이 있기에 화장실 보수 공사와 배수로 설치를 우선 순위에 두고, 쓰레기통 설치 는 이 문제들이 해결 된 후에 고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외부의 힘을 빌려 환경을 개선하는 것 말고도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환경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Digorolla Garden 아이들과 목요일에 Cleaning Day를 했습니다! 짹짹! ㅋㅋ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사가서 아이들과 함께 Digorolla 마을 전체를 다 같이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먼저 쓰레기를 주우려고 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떤 것이 쓰레기이고 어떤 것이 쓰레기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더군요. ㅎㅎ 옆에 비닐들이 버려져 있는데도 그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줍는다든지... ㅋㅋㅋ 어찌되었든 정말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어서 예쁘고 대견한 아이들입니다 ^\_^

그리고 저희 디고롤라에 타이어 의자도 설치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한국에서도 가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타이어를 땅 속으로 반쯤 심어 놓아서 도너츠를 반으로 자른 모양만 지상으로 나와 의자 효과를 주는... ㅎㅎ 저희가 디고롤라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항상 강가 근처의 좁은 공터(?)에서 모였었는데 그 곳이 마을 주민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공터에 돈을 들이지 않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타이어를 구해서 타이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5개를 설치할 생각으로 타이어를 다 들고 갔는데, 땅을 파는 순간부터 나오는 것은 흙이 아닌 비닐과 플라스틱... 생각보다 지반이 너무 약하고 땅 밑이 모두 쓰레기로 차 있어서 진행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지 Staff와 회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판단하에, 우선 하나의 타이어 의자만 설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하나 밖에 설치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뿌듯합니다.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은 타이어 의자를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앞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Digorolla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5번도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πππ 사실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많이 얽여있는 지역이라서 Digorolla Garden에 대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건상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보는 것도 슬픈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떠날 까봐...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직 완전 1000000% 확정이라고 할 순 없지만 Digorolla 마을의 주민 분들이 6개월 후에 모두 Angulana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마을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도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앞으로 Digorolla Garden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주 문제를 떠나서 현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고민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 보면 그래도 참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 그들과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기수 분들이 저희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강가의 아이들과 떠나는 사진 여행!



이제 YMCA로 와서  
수업을 하는  
Digorolla 아이들 : )



(옆. 아래)  
Cleaning day때  
마을을 청소하는 아이들!





(바로 위)  
보수공사가 필요한 화장실..  
버려진 옷들이 쌓여있다



(위 / 옆)  
설치한 타이어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강가의 아이들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살아나가렴...

여태까지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항상 웃게 해줘서 고맙다! ^^ 사랑해!

## 라온아띠의 6월: Compost Bin

지난 달 보고서에서, 우리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은 현재 Compost bin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잘 수행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의 중간 기점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Compost bin에 대한 문서화 작업, 영상을 통한 교육자료, 지금까지 Compost bin을 나누어준 8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 또한 기억하고 계시죠?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이 80가구 전체의 설문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Compost bin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등, 이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정보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에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내용물은 어떻게 넣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그 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 10가지 정도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것을 YMCA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현지어인 싱할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 나이 항목은 현지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대신 각 집의 주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직접 그 집으로 교육을 나가거나 보수를 나갈 때, 각 집의 주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Compost bin을 쓰면서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새로 추가하

였습니다.

또한, 낮에 일을 나가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반복적으로 설문을 하지 못하는 집의 경우 추후에 YMCA에 연락을 달라는 메모를 남겨 다시 찾아가는 수고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실까요?

이 집들은 Compost bin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군요.



반면에, Compost bin을 일반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식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파괴된 집들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실제로 라온아미가 Compost bin을 나누어 준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이 3주동안 거의 하루도 비가 오지 않는 정말 찝찝한 더위 속에서 **정말정말정말 힘들었다는 것**

니다. 하루에 10집 정도를 돌았는데, 이 10집은 방문한 집의 호수가 아니라 **설문지를 작성한 호수**라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낮에는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30집 정도를 돌아야 10집 정도의 설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다음에 스리랑카에 오실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놀면서 쉽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ㅋㅋㅋㅋ

직접 방문조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까지 Compost bin을 나누어 준 집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집이며,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집들 역시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Compost bin을 나누어 준 지역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Compost bin이 진정한 지역환경개선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나누어주는 집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의문으로는, 과연 중산층 이하의 집에 Compost bin을 나누어 주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이 있지 않은, 비료가 직접 필요하지 않은 집에서 이 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직접적, 간접적 이득이 있는지를 교육자료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를 7월 한달동안 열심히 번역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자료 내지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기수가 열심히 만든 자료는, 6기가 직접 보고 바로 Compost bin을 성공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 모두 지켜봐주세요!

# 최후의 만찬; 5기와 함께 걷다

## ආයුබෝවන්!

**안녕하세요!** 벽화 소식을 듣고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스리랑카팀 5기입니다 쿠쿠. 저희 팀 보고서 용량이 너무 커서 라온아피 홈페이지에 5월 보고서가 늦게 개재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아쉬워요! 벽화 소식을 더 일찍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흑흑

한달 동안 저희 벽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놀라울 만큼!!!

벽화의 모습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어쩌다가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월말 보고서에 자세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생생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 써 봅니다.

저희가 3월에 스리랑카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YMCA측에서 5개월 간의 스케줄을 다 짜 놓았었는데, 그 중에 벽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5기만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전 기수들 모두(2기부터) YMCA 벽에 자기 기수만의 특별한 벽화를 그렸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어서 쭉 다음 기수들이 벽화를 그려나가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2기부터 4기까지 벽화를 그리고 나니 5기인 저희가 벽화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4기가 벽화를 그린 옆에다가 그릴 순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통로에 있는 벽이기에 그리기가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YMCA Main Hall 뒤에 있는 벽에 그리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Main Hall 과 Main Hall 뒤의 벽이 어딘지는 5월 보고서를 참고 하시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YMCA 중심에 있는 벽. 너무 그리고 싶었지만 현지에서는 그 벽을 라온아피의 벽화를 위해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라투와 YMCA의 사무총장인 Sampath Fernando가 그 벽에 “최후의 만찬”을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기에 포기하려던 찰나, 모라투와 Y측에서 너희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저희 팀 내부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 하는 데 길고 깊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랐기에 의견을 조정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저희는 결국 벽화를 그리기로 의견을 합의한 후 최후의 만찬 벽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그 후에 5월 보고서에서 보셨던 “보드 멤버 설득 작전”이 시작된 것이구요. 그리고 저희는 그 보드 멤버 설득 작전을 위해 쓴 A4용지 3장의 편지 덕분에 현지 YMCA의 무한한 신뢰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 저희는 드디어 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힘들게 밑그림을 마친 후(special thanks to Dedunu♡) 저희는 바로 페인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색을 칠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색을 칠하는 것보다는, 실제 원본 그림과 맞는 색깔을 찾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더군요. 필요한 기본 색깔의 페인트를 15통 정도 사 놓고, 원본 그림과 맞는 색깔을 찾기 위해 저희는 색깔을 섞고, 팔레트를 닦고 하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여 맞는 색을 찾으면 그제서야 색을 칠합니다. 그림에 명암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다 칠했다 이상하면 지우고, 멀리서 보면 어떤지, 또 가까이서 보면 어떤지 계속 칠하고 지우기도 반복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벽화이기에 저희 모두 책임감이 막중해져서, 벽화를 할 때는 모두 집중력 급상승입니다.ㅋㅋㅋ 사실 많은 팀원들이 벽화 작업을 재미있어하기도 합니다. 힘들게 칠한 벽화 속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의 모습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하기 그지없달까요... ㅋㅋ 사실 정말로 힘들거라고 생각했는데, 팀원들끼리 서로 돕고 하루 하루 열심히 하니 저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벽화를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저희에게 많은 추억거리입니다. 페인트를 옮기면서 바닥에 다 었은 기억, 매일 4-6시간 정도 벽화 작업을 하면서 저희의 코디네이터가 사주는 맛있는 초코우유와 콜라.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벽화를 좋아해서 뿌듯했던 기억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저희의 벽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YMCA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벽화 앞에 멈춰다 가거나, 자기 자녀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님들도 힐끔 힐끔 쳐다보시면서 벽화가 아름답다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YMCA 스태프 멤버들도 시간이 날 때 마다 저희가 벽화 작업 하는 것을 보러 옵니다. 와루니 앓까와 아쇼카 아이야 (앓까: 언니, 아이야: 오빠)는 거의 30분에 한 번씩 와서 벽화를 보고 갑니다. 앉아서 보기도 하고 서서 보기도 하고 저희와 장난도 치고... 또한 저희가 벽화를 그리는데 조언을 구했던 화가 분도 YMCA까지 직접 오셔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고 가시고, 모라투와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조차 벽화를 보러 오셨다가 가시곤 합니다. YMCA의 주축이 되는 보드 멤버들도 상상했던 것 보다 벽화가 훨씬 아름답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신뢰 급상승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심지어 코디네이터 아쇼카 아이야는 나중에 벽화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비행기 티켓을 줄 테니 보수 작업을 하러 와 달라고 장난까지 칩니다. ㅎㅎㅎ 아니면 다음 기수들이 벽화 보수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색을 만들 때 어떤 어떤 페인트를 섞었는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달라는 말까지.....(헐). 사실 저희도 한 번 색깔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습니다... 하하하하 워낙 어렵기 때문이죠 하하하

벽화로 쌓아진 신뢰 덕분에 저희 캐노피(Canopy)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그림이다 보니, 많은 보드 멤버분들이 그림이 손상되는 것을 걱정하여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벽화를 그리는 것 조차 반대하시던 보드 멤버 분들이 이젠 손수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이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원래 있던 벽 위로 2.5 인치 정도 벽을 더 쌓아 올렸습니다. 캐노피를 설치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타일 재질의 캐노피를 곧 설치할 예정이구요. 캐노피를 설치 하기 위해 사람을 쓰는 것만 150,000원이 들고 캐노피 가격만 500,0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현지 물가를 봤을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싼 가격인데요. π\_π 그래도 벽화를 위해 캐노피를 설치해주신다고 합니다 ^^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지요. 현재(7월초)는 아직 벽만 더 쌓아 올린 상태이구요, 캐노피 설치 작업은 타일을 구입하고 난 후에 바로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벽화가 저희 팀과 같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걸어간달까요. 벽화를 마무리 하며 저희도 마지막 달인 7월을 맞이하고, 점점 모든 것을 마무리 해가는 것 같습니다. 벽화도 멋지게 끝내고, 저희 스리랑카팀 5기도 저희 팀 다운 저희 만의 모습으로 멋지게 마무리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태까지 저희 랑카팀 응원해주셔서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 Wall Painting 대 공개!





캐노피 설치를  
위해 벽을  
올렸어요!

## 라운아띠 캠페인: 350ppm

라운아띠 5기가 출국하기 전 우리들이 했던 약속, 즉 라운아띠 5기가 공동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간사님이 신신당부하셨던 것, 기억 하시나요? 바로, '세계 환경의 날에 350ppm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었죠. 아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로, 이 날은 말 그대로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날입니다. 자, 그럼 350ppm은 무엇이고, 350ppm 캠페인은 무엇일까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 중 이산화탄소, 즉 CO<sub>2</sub>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산화탄소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지구가 복사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계속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하는 기체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대기 중에 일정한 농도 이상 존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농도가 350ppm입니다.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350ppm이상 있으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50ppm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50ppm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 바로 350ppm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운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은, 이 캠페인을 우리 활동의 거점이 되는 YMCA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고, Youth Club과 Children Club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금요일에는 Youth Club과는 자동차를 이용한 캠페인, 6월 4일, 토요일에는 Children Club 아이들과는 거리행진 및 화분 옮기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여기서 "왜 환경의 날에 하지 않고 그 전에 했는가?"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6월 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현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힘들 것이라는 우리와 현지 스태프, 보드 멤버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의 일요일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주일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사람들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 아주 당연했죠. 그랬기 때문에, 환경의 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한 날짜가 6월 3일과 6월 4일이었던 것입니다.

Youth Club 사람들과 한 캠페인은 모라투와 YMCA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생각은 '교통수단과 이산화탄소' 였습니다. SUV, 경차, Bajaj(삼륜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이 창문 밖으로 혹은 그것을 타고 서서 그 교통수단에 맞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팻말을 들고 서있는 것이죠.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SUV가 가장 높고, 자전거가 가장 낮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타지 말고, 이산화탄소 거의 안 나오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Youth Club과 함께 해서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페인은 우리 라운아띠

가 교통수단을 조달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캠페인이기 때문이죠. 이 지역의 청년들인 Youth Club 사람들은, 그들의 나이에 걸맞게 오토바이와 경차를 흔쾌히 가지고 와 주었죠. 그 밖에, SUV를 조달해 주신, 우리가 항상 감사드릴 수 밖에 없는 Nihal 아버지, 또한 Bajaj를 조달해 주신 우리의 든든한 밤길가드 Anthony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Children Club 아이들과 함께 한 캠페인은 350ppm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길거리 행진과, 환경을 지키자는 상징인 식물을 옮기고 그것을 다시 무사히 옮겨 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가 만든 350ppm 로고를 가슴에 달고, 한 줄로 늘어서 화분을 건네주고 건네준 후에는 그 줄의 끝으로 가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형식의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몇몇 덩치가 큰 아이들과 라온아띠들은 큰 350ppm 로고를 들고, 혹시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줄을 잡아주고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주었고, 우리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들의 '엄마'들까지 참여해주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다면, 우리의 큰 350ppm 로고에 ppm을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지나가던 운전자가 그 로고와 식물을 동시에 보시고는, "이 식물 350루피에 파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다는군요.....뭐 그렇다 하더라도, 라온아띠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겠죠?

우리의 350ppm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고 한껏 고무된 모라투와 YMCA President님은, 바로 그 다음주에 우리의 캠페인의 모습과 설명이 담긴 기사를 작성하여 라온아띠의 이름으로 지역 신문사에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라온아띠들은 모라투와 지역신문에도 이름과 얼굴을 올리는, 일생에 단 한번뿐일지도 모르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의 350ppm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350'이란 숫자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350'이란 숫자는 이 캠페인에서 없어서 안될 중요한 숫자이자, 큰 상징성을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성을 사진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사진에 잘 담겨지지 않을 이 캠페인의 배경지식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마치, 가게 주인이 자기 물건이 아주 좋은 가격인 350원이니 다짜고짜 사라고 하는 식인 것이죠. 자기의 물건이 무엇이며, 그 전에 가격보다 얼마나 싼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그 실천"이라면,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수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치에 대한 내용과 그 설명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나라 혹은 각 지역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캠페인 모토와 방법을 공유해 보고, 각 나라에서 한 날 한시에 진행하는 공동의 캠페인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 350ppm의 실제 모습을 사진을 통해 감상하시죠!

6월 3일에 Youth Club과 진행했던 350ppm 캠페인입니다. 남쪽나라의 태양은 정말 겁나 빠르게 지더군요.....Aiyoooo.....잘 안보여도 이해해 주세요염♡



이날, YMCA 2층 베란다에서 찍은 미니 캠페인 사진입니다.



6월 4일에 Children Club과 함께 한 캠페인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모두들 감사♡. 중간중간 숨어있는 라온아띠들을 찾아보세요. ㅋㅋㅋ



이런 식으로 일렬로 줄을 서서, 거리 행진과 화분 옮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의, 예뻐 수밖에 없는 작품들을 보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끗한 지구 위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라온아띠가 항상 환경지킴이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 스리랑카의 태양 보다 마음이 더 뜨거웠던 날,

-카루타라 marc sri-

6월 11일 스리랑카 팀은 모라투와 YMCA children club 아이들과 함께 카루타라에 있는 marc sri 에 다녀왔습니다.

Marc sri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센터 입니다.

아침 일찍 모라투와 기차역에서 다 같이 만나 카루타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저희 랑카 팀과 코디 아쇼카 그리고 children club 아이들과 몇 분의 아이들의 엄마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들 아침 일찍 나오느라 아침 밥도 거른 상태였지만, 마치 소풍을 가듯 들뜬 날 이였습니다.

Marc sri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식사를 못 할 정도로 중증 장애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Marc sri에 도착하자마자 장애 아동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밖에 저희에게 맡겨진 임무는 청소와 빨래를 하는 일 이였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없었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 역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였습니다. 때문에 청소나 빨래 같이 힘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팀을 나누어 엄마들과 여자들은 빨래를 맡았고, 남자 아이들은 바닥청소부터 소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저희가 한 일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고, 언제나 예쁜 children class 아이들과 함께하여 더욱 좋은 시간 이였습니다.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경험이 처음인 팀원도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거부감도생기고 자신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활동 후 생각했던 것보다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 생각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장애 아동도 일반 아이들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만 잡아도

행복하며, 저희를 위해 웃어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등 저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날 아이들이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단살, 나누는 즐거움

자, 이번 이야기는 단살입니다!! 저번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단살이 무엇인지 기억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ㅎㅎ 단살은 불교 행사의 하나로서 불교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나눔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음식 등을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줍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어도 단살을 하고 싶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YMCA Youth Club 멤버들과 함께 6월 15일 Poson Day에 단살을 했습니다!! 짹짹ㅋㅋㅋ 사실 5월의 Wesak(저번 달 보고서 참고)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단살 때 주는 음식을 받기만 해서 아무 느낌 없었는데 실제로 단살에 직접 참여해보고 나니 정말로 너무너무 재미있더군요?ㅋㅋㅋㅋㅋ

우선 준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흠. 사실 저희는 아이스크림 단살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콘을 갑자기 대량으로 구하려다 보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급히 음료수 단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섞을 수 있는 음료수 원액 20병 정도를 사고서 Youth Club이 음료수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큰 통에다가 물과 음료수 원액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음료수를 만들고, 정말 열정적인 Children Club 아이들도 와서 단살 Booth 설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단살을 시작하자마자 저희 모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 음료수를 마셨다 가고, 저희 모두 멈춰선 차와 걷던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주느라 바빴습니다. 삼륜차, 버스, 승용차, 자전거 가릴 것 없이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주고 멀리 걸어가 지나가던 분들과 단살의 즐거움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몇 몇 단원들은 메인 Booth에서 쟁반 위 컵에 음료수를 따르는 역할을 했구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단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와, 공짜다!” 라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얻어 먹기만 했는데, 실제로 단살을 하고 나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나누어 주고 끝내는 그 순간까지,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받을 때보다 나눌 때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하! 참여도도 좋아서 한껏 흥이 가해진 것도 같아요. 사람들 모두 지친 기색 없이 소리 치고 뛰어 다니고, 심지어 바쁘신 YMCA의 보드 멤버 분들도 많이 오셔서 끝까지 저희가 단살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돌이켜 추억해보면 모두가 행복했던 한 여름 밤의 꿈 같네요... :) 이제 이것도 다시 오지 않을 지난 날의 기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속엔 언제나 살아있을 단살, 나누는 것의 즐거움. 끝까지 간직하고 가려고 합니다. !!!! 다음 기수분들도 스리랑카에 오시면 꼭 단살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네요 ^^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실 준비를 하시고.. ㅋㅋ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이야기로... 송! =3

# YMCA 기금 마련 활동

## 06.18 Flag day!!

Flag day는 저희들의 6월,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저희 라온아띠 팀을 비롯해서 모라투와YMCA 직원들, Children Club 아이들, Youth Club 친구(한 명 왔더군요) 그리고 몇몇 Children Club 학부모님들 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짹짹!! 완전 멋짐!!^^ 그래서 가끔 느끼는 건데 YMCA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언제나 한달음에 모여드는 이곳 사람들이 정말 정겹고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Flag day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고, 깔~끔하게! 몇 글자 적도록 하겠습니다!!히히

아, 그 전에 좀 황당하고—, 부끄러운ㅠㅠ,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죠.. Flag day가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활동인데, 저희 팀은 Flag day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날이었는지 오늘(7월7일)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어쩌다 이리 됐냐 하면, YMCA에서 사전에 Flag day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물어보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저희 멤버 중 누군가가 보드멤버로부터 Flag day는 '땡구열병에 걸린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저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기 위해 오늘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이런 황당부끄러운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것이죠..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lag day가 무엇이나 하면 말이죠ㅋㅋ. 그냥 현지 YMCA의 기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Flag라고 하는 YMCA로고가 박힌 작은 스티커를 사람들에게 액수에 상관없이 팝니다. Flag를 팔 적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스리랑카에서 모금운동을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돈을 주더군요하하^^;

그리고 그렇게 모은 기금으로 YMCA에서 하는 활동비용과 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 등등에 충당하여 쓴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선행적이거나 자선적인 모금 활동은 아니더군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지 민망>\_<.. 하하하하.. 그러면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Flag day의 진행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Flag day는 주요 회원들인 Children Club과 Youth Clu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Youth Club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율 (25명 중 1명, 앞으로는 Youth Club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Children Club 아이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06:0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4:00시까지 모금운동이 이루어졌고 3인 1조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반경은 MORATUWA YMCA를 기점으로 5Km정도였으며 근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고 원거리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왓! 이 대목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랑카에 민폐덩어리로 굴러들어온 저희들을 무한 인정, 무한 신뢰, 무한 사랑 해주시는 Nihal Fernando(=아빠)께 이번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활동을 도와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Nihal 닷따를 따라간 지역에서 모금활동을 한 '사유리(이지윤)'단원의 말에 의하면 한 집 방문 할 때마다 100루피(1000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4명의 멤버는 5~20루피를 받았는데...OTL 저희 4명과 대적할 만한 모금을 하고 왔으니.. 정말 착오乃

이번 모금운동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해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금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과는 하는 방식이나 하는 목적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방식 같은 경우, 한국은 한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큰 모금함을 두어 정적인 활동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현지 YMCA에서는 다수의 그룹을 만들어 작은 모금함을 들고 이곳 저곳을 방문하는 유동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목적 같은 경우도 한국은 선행적이거나 자선적인 것이 일반적이는데, 현지 YMCA에서는 사업적인 이유의 모금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군요.

Flag day는 활동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적인 활동 보다 모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력 소모가 빠르다는 점..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의 열띤 활동력은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연령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MORATUWA 기차역에서는 라온아띠의 ARUNA단원그룹과 SAYURI단원그룹이 이른 아침부터 누가 모금을 빨리 하나 열띤 경쟁을 벌였고요. YMCA건물 앞 도로변에서는 DEDUNU단원과 RASHMI단원이 Children Club학부모님과 Y직원들을 이끌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붙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CHAMARA단원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YMCA건물로부터 근거리를 배회하며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팀은 활동 전에 '이 팔뚝만한 모금함에 돈이 모이면 얼마나 모일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한 두 개도 아닌 50개의 통을 말이죠.. 심지어 '모금함을 구입한 비용의 본전이나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죠.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모금률에 저희는 놀랐습니다. \*0\* 지나가는 사람들의 10명 중 5명은 흔쾌히 모금을 했으니 50%나 되는군요!! 이런 면에서 저희는 의외의 결과라 생각했고 쾌척한 마음이 한국보다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hildren Club 아이들의 높은 호소력과 녀살에 감탄했습니다. 귀여운 쌍둥이 자매 네마샤 프라그띠는 남들이 말로 설명할 시간에 올랑출망하고 올망졸망한 눈망울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YMCA 재간둥이 다누시커는 진실된 표정과 호소력 짙은 말씀씨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금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네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현지에서 쓰는 마지막 보고서라 그런지 눈물이 화면을 흐리게 하려고.. 어흐흑ㅠㅠ.. 이만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코리아띠 하무웨무...(이제 한국에서 만나요)



Figure 1, Children Club의 한 아이가 거리의 시민으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찰칵!



Figure 2, 모금운동 중 기념사진..에까 데까 뚜나!



Figure 3, 개구리 중사 케로로를 연상케 하는 한 아이가 Flag를 들고 사진 한 장!





Figure 1, 모금운동을 하는 DEDUNU 단원



Figure 2, 왼쪽DEDUNU단원 / 오른쪽RASHMI단원  
가운데Children Club 아이



Figure 3, RASHMI단원과 Children Club학부  
모님, 마치 모녀지간 같지 않나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Figure 4, 직접 참여하신 학부모님^^



Figure 5, 모금운동 중인 DEDUNU단원(오른쪽)



Figure 6, Youth Club 회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 수  
데쉬 남매 / 샤니커(왼쪽) 수데쉬(오른쪽)

## 스리랑카의 보고, 국립 박물관에 다녀와서

저희는 6월 7일 콜롬보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다녀 왔습니다. 중간평가와 350ppm 캠페인을 끝냈기 때문에 흥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 모두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에 갈 수 있어 많이 설렸습니다.



박물관에는 많은 유물들이 고대 나라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구분 되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석기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작고 섬세한 장신구와 약통들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를 상징하는 유물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유물들이 마치 스리랑카를 설명하듯이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면 무척 섬세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었나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유물 중 장신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장신구가 화려하고 그 수와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보아 귀족적인 문화가 많았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1<sup>st</sup> 여행지에서 보았던 많은 유적들의 흔적에 비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의 양이 많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역사의 흔적들만 대충 보아도 엄청난 양의 유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많이 빈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유물의 보호하는 기술이 안타까운 부분 이었습니다.(비 오는 복도에 그냥 방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자연 박물관 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놀랐던 점은 정말 정말 작은 식물에서 나오는 벌레에서부터 커다란 물고기, 새, 표범 등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스리랑카에 박제 기술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스리랑카를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와 앞으로의 스리랑카를 위해 생각하고 노력했다 하면 박물관에서는 스리랑카의 과거를 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던 시간이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스리랑카의 과거를 알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저희 스리랑카 팀은 지난 4개월을 통해 정말 스리랑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 유물들이 스리랑카 역사의 한 시기를 대표 하듯이, 저희도 이 남은 기간이 우리 인생의 대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갈고 다져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리랑카의 장례식

6월 12일, 그리고 18일, 저희는 현지에서의 장례식에 2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YMCA 아빠인 제라드 땃다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분은 모라투와Y 보드멤버인 Mr.수웬거의 어머니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한국과 같이 고인이 알고 지냈던 사람 및 상주의 지인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서 조의를 표한다는 말에 저희는 다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라드 땃다의 어머니는 모라투와에서 5~6시간 거리의 누와르엘리아에 살아오셨기에, 저희는 YMCA 스태프들과 함께 벤을 빌려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대여섯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모친을 잃은 제라드 땃다의 슬픔을 생각하면 저희의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스리랑카의 장례식장은 흰색 천 및 꽃, 전구 등으로 덮여있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 곳에 들어서면 과자 및 커피 등을 함께 먹고, 한국에서처럼 술을 마시면서 상주와 함께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조의금을 모아 상주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조화 및 조의를 표하는 현수막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2번의 장례식 중 Mr.수웬거의 어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돌아가셨기에 호상으로 여겨져 장례식 분위기가 많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랐던 점은 기본 7일장을 하며 가족이 원할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장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상주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7일동안 밤샘을 하며, 고인 주변에서 그 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추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즈음은 색깔이나 옷의 형태에 있어서 선택이 자유롭기에 장례식장에 일상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고인을 장례식장에 안치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조의를 표하게 합니다. 흰 수의에 싸여 꽃과 함께 누워있는 고인의 모습과,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진기에 담기도 하는 스리랑카의 문화는 저희에게 많이 생소하였지만 고인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며 저희도 함께 그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누군가를 잃게 되거나, 장례식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어떤 문화권에서나 같다고 느껴집니다.

## 스리랑카 음식 만들기

무더운 어느 날, 아쇼카와 스리랑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스리랑카 음식을 배워보면 어떨까?** 꼬투, 호퍼, 달, 치킨 커리, 빠빠담 등등 알고 있는 스리랑카 음식은 모두 주워섬기는 우리를 보며 아쇼카는 말합니다-\_-

**“달(빠리뿌 커리) 쉬워! 2분 걸려!”**

그래서 스리랑카 쿡킹 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바바바밤!

### 치킨커리

- 필요한 재료 : 닭, 마늘, 양파, 코코넛 오일, saffron, chili powder, 감자, 씨양배라, 고추, 생강, 토마토, 람빠, 월계수 잎, 꾸룬두, curry powder, 소금, 코코넛 밀크, 물 1컵, 후추

- ① 닭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 ② 감자를 삶으면서 ③의 재료를 준비한다.
- ③ 씨양배라, 토마토 1개, 람빠 1/4개, 고추 6개, 월계수 잎 조금, 양파 2개, 꾸룬두, curry powder 1/2봉지, saffron 1/2스푼, 생강 1개, 마늘 2쪽, chili powder 1/2봉지, 소금 1주먹을 다함께 뒤섞어 양념을 만든다.
- ④ ①의 조각난 닭과 ③의 양념을 함께 섞고 물 1컵을 붓는다.
- ⑤ 솥을 불에 달군 뒤, 코코넛 오일을 200ml정도 넣는다.
- ⑥ 솥에 ④의 양념과 물을 더 붓고 끓이면서 후추를 조금 넣는다.
- ⑦ 커리가 팔팔 끓으면 코코넛 밀크를 적당히 넣고 계속 끓인다.
- ⑧ 기호에 따라 토마토 등을 추가해서 먹는다.



## 빠리부 췌리(달 췌리)

- ① 빠리부를 물에 뽁뽁뽁 씻는다.
- ② 빠리부에 코코넛 밀크를 잠길 만큼 넣는다.
- ③ ②에 샤프론 조금, chili powder 1스푼, curry powder 1스푼, 양파 1개, 고추 3개, 램펠 1/4 조각, 월계수잎을 넣고 끓인다.
- ④ 코코넛 밀크와 소금 1/2주먹을 넣고 더 끓인다.



## 감자췌리

- ① 감자를 삶으면서 ②의 재료를 준비한다.
- ② 양파 5개, 마늘 4~5쪽, 램펠, 켈리, 소금으로 양념을 만든다.
- ③ 코코넛 오일에 ②의 양념을 볶는다.
- ④ ③의 양념에 ①의 삶은 감자를 넣고 볶는다.



귀국하고

한국에떠 하무워무!

당도오르디